

[목회자 모임] 생명의 원천

2018년 5월 4일 이현래 목사님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36:9).**”라는 말이 있다. 어떤 현대인 성경에는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다.

비슷한 말인데 아마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더 가깝고 확실한 것 같다.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면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생명>에 대해서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의 원천이 따로 있는가로 생각하기 쉽다.

이해하기 쉽게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면 가까워지는 것 같다. 생명은 삶이 있다. 삶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한다. 삶의 원천이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삶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가? 그분 때문에 모였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한 원천이다. 극장에 간 사람은 왜 극장에 갔는가? 극장에 가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극장에 간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왜 모였는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였다. 그 이유가 되신다는 뜻이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신 분이다.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가 되신 분이다.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그런가?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아담은 왜 그렇게 사는가? 아담의 원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삶의 원천이 다르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담이다. 아담을 무엇을 해도 원천이 선악과다.

맥주를 만드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 물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맥주 맛이 좌우된다고 한다. 맥주 맛의 원천은 좋은 물이다. 아담의 삶의 원천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다. 좋은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 옳은 일을 하느냐 그른 일을 하느냐고 사람들은 판단하려고 한다. 그것은 저 밑에 있는 일이고,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원천이 어디인가가 중요하다.

그 물 맛은 바꾸지 못한다. 거기에 가미를 하고 여러 가지 맛을 붙이지만 원천인 물의 맛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콜라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 원천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표면적인 것만 보고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네, 그것밖에 모른다.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네, 저 사람은 참 불의한

사람이네, 그것밖에 모른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아담도 선한 사람은 엄청 선하다.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만 못하다는 말도 듣는다. 저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말도 많이 듣는다. 이것은 표면적인 결과를 보고 하는 말이다.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원천이 중요하다.**

아담은 자기가 필요하면 선해진다. 자기 필요에 따라 의로워지고, 자기 필요에 따라 악해진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따로 없다.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원천이 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삶의 원천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를 행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것 때문에 의를 행한다. 이것을 자기 의라고 한다. 의는 의이지만 뒤로 가보면 그 의는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는 그런 의가 돼버린다. 처음에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내가 젊은 날에 약 4년 동안을 전쟁에 휘말렸다. 나도 처음에는 내가 의로운 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싸움을 시작했다. 저것은 불의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다. 청년 때이니까, 30대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저쪽도 똑같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양쪽 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재판장이 따로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같은데 입장 차이이다.

오늘 아주 선하게 구는 사람도 다른 입장에 가면 아주 악할 수가 있다. 오늘 또 아주 악한 사람도 다른 입장에 가면 아주 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아담을 볼 때는 다 아담으로 봐야 된다.

바울의 탁월한 재능이 어떻게 모든 인류를 아담 한 사람 안에 다 정의 했는가 하는 것이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왔다.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종류의 일이 있다. 그것을 각자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다. 황당한 이야기 같다. 어차피 내가 죄인이 된 것도 나 때문에 된 것 같고, 의인이 된 것도 다 나 때문에 된 것 같다. 내가 잘못된 것은 남 탓이고, 내가 잘한 것은 내 탓으로 되는 것이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아담이 원천이 되었는가, 그리스도가 원천이 되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다 목회를 하시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또 교역자들이 모이는 노회나 총회에 많이 참가하실 것이다. 거기에 가보면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정치하는데 가면 사람은 그대로 있고, 명분만 달라진다. 명분에 지면 지는 것이고, 명분에 이기면 이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편이 지금 그렇다. 어떤 사람은 명분에 따라서 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분에 역행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옳아도 환영 받지 못한다. 정치는 명분이다.

사람도 행동을 할 때, 명분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늘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명분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원천이 같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이다.

시인은 그렇게 말한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내 삶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 삶의 원천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평가할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다르다. 빌라도가 보는 예수가 다르고, 제사장이 본 예수가 다르다. 로마의 군병들이 본 예수가 다르다. 다 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다르니까 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삶의 원천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자리에 가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22:42).**”라고 나온다. 원천이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죽을 때 봐야 그 사람의 진실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 평소에는 그 진실이 안 보인다. 삶의 원천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은 전부 하나로 뭉뚱그려서 아담 안에 포함 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 포함 되었느냐로 말하고 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다.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 둘 중 하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바울이 그랬다. 우리가 아담과 같은 일을 행한 일이 없지만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원죄라고 하는데, 정말 난해한 것이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 같이 되었는가? 물어보면 내가 안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로마서에 있는 논리대로 하면 내가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다 아담 안에 있다. 내가 아담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아담의 범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삶의 원천이 한 군데 있다는 것이다. 아담의 삶의 원천과 내가 사는 삶의 원천이 하나라는 말이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건성으로 부를 일이 아니다. <내 삶의 원천이신 주님>이라는 말이다. 좋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다. 자기 뜻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따르기가 어렵다. 그 안에 나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것을 요구하면 좋은데, 나와 다른 것을 요구하면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이것이 각자 자기 하나님ی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창3:22).”고 했다.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고 한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보고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라고 했다. 그것은 사람은 다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뜻이다.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던 것을 예수님이 시행했을 때, 사람들은 다 지지하고 따랐다. 우리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고, 돌로 떡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싶은 사람이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싶은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좋은 일이다. 굶주린 백성에게 오병이 어로 먹이고 싶고 다 좋은 일이다.

내가 생각할 때 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 따라 왔다. 제자들도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다. 심지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당신이 옳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차츰 빛나가기 시작했다. 자기들 생각과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 길로 가는가?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동문서답이 되게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 듣게 된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게 된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조르던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잠시 동안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니 다 자고 있었다고 한다. 피땀 흘려 기도하고 계시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더라는 것이다. 꼭 피곤해서만 잔 것이 아니다. 자기 일로 보이지 않으니까 잔 것이다. 자기가 지금 그런 일이 앞에 닥쳤다면 잠을 자겠는가?

점점 말을 못 알아듣게 되고, 길이 서로 달라지게 되었다. 원래부터 달랐지만 다른 것

이 드러나게 되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설마 그렇지 않겠지 하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래도 끝까지 기대를 가졌던 모든 것이 끝났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 이것이 수용이 안 된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이 수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는 나에게 필요가 없다.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따라 가겠는가?

매달아놓아도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주님!>하고 따라 갔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내가 왜 따라 가겠냐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 당시 해방 후는 이*만 박사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장관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런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요즘은 교회들이 크니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당시에 시골에서는 왕따이다.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왕따이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도 있겠지만 시시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아주 얄잡아 봤다.

어린 나이에 속으로 대통령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 아무개 장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뛰어내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않은 예수를 믿고 있다.

능히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인류 구속을 위해 뛰어내리지 않은 분이다. 그러니까 더욱 위대하다. 뛰어내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않고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위대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믿고 있는데 뛰어내릴 능력이 없어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니까 절망이 되는 것 같다. 상당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가 믿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절망이다. 내가 어디에 가서 자랑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예수를 아는 것이 가려져 있는 일이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당신의 빛 가운데서 내가 빛을 봅니다(시36:9 참고).**”라고 말했다. 빛 가운데서 빛을 본다는 말을 좀 난해한 말이다.

비유를 든다면 태양 빛으로 태양을 본다는 말이 될 수 있다. 태양이 비치니까 내가 태양을 보지 태양을 비쳐주지 않는다면 내가 태양을 보겠는가? 당신의 광명 중에서 내가 빛을 봅니다. ‘빛을 봅니다.’를 ‘당신의 빛 가운데서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라. 당신이 빛을 비쳐주는 만큼 내가 당신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빛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다.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다. 내 눈으로는 비참하다. 인생이 저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저것밖에 안 되는가? 이것밖에 안 된다.

뛰어내린다면 그렇지,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나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아도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뛰어내리지 못해서 죽었다고 하면 내가 자랑거리가 안 된다. 이것이 자랑이 안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무슨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우리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분이 내 생명의 원천이라고 전하는 것이다. 뛰어내리지 못한 이 분이 내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분을 그냥 알아서는 안 된다. 내가 어디에 가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분이 내 삶의 원천이니 이 사람을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

“주의 빛 안에서(광명 중에) 우리가 빛(광명)을 보리이다(시36:9).”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빛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자기에게 묻고 자기에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안에 있는 나와 밖에 있는 나를 말한다. 밖에 있는 내가 안에 있는 나를 깨운다는 것이다. 불교적인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자기 생명의 원천이 삶의 원천이 없다. 자기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 자존심이 살아난다.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분이 내 삶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보다 내 속에 있는 나는 참 나인데,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밖에 있는 내가 안에 있는 나를 깨운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각이다. 그렇게 빛나간 사람이 있다.

이것이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이 다 그렇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자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속에 진짜 자기가 있다. 참 내가 있다. 진실한 내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알 수 없다. **“주의 빛 안에서(광명 중에) 우리가 빛(광명)을 보리이다(시36:9).”** 그분의 빛이 없으면 나는 그분을 알 수 없다. 뛰어내릴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영광인가? 그것이 없으면 내가 그분을 모른다.

지금까지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다. 베스다 광야에도 가보았고, 나사로의 집에도 가보았고, 갈릴리 혼인잔치 집에도 가보았고, 다 가보았다. 자기들은 예수 전문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캄캄해져 버린다. 어느 순간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모르게 돼버리고 말았다.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가 잘못 봤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다. 왜? 아담은 자기가 선

악을 앎으로써 하나님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이다.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도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봤다. 변화산에서도 봤다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어떤 미국 선교사와 이야기를 하니까 이목사님은 뭐가 다르냐고 물었다. 다르기는 뭐가 다른가? 나는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예수를 다 아는데, 예수를 알아가는 뭘 알아가느냐고 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냐는 것이다. 나는 평생을 예수를 알아갔지만 이 사람은 다 모른다. 그 선교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냐고 한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나도 다 안다. 하루 이틀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다.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아무리 바보라도 내가 그것을 모르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 나는 그것이 아니었다.

늘 알아갈수록 새로운 분이 알아진다. 그분의 빛 가운데 내가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 빛 안에서(광명 주에) 우리가 빛(광명)을 보리이다(시36:9).”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한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광명 중에) 우리가 빛(광명)을 보리이다(시36:9).”

우리는 그분의 광명이 없으면 그분을 볼 수 없다. 우리 속에 있는 빛으로는 볼 수 없다. 내가 이마를 두르려 봐야 번쩍할 뿐이지 그것을 갖고 뭘 보겠는가? 내 속에는 예수를 알만한 것이 없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을 전시해 놓았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라 하고 전시해 놓았다. 거기서 내가, 내가 저 사람이구나. 내가 싫어해서 동산까지 포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안 되려고 나는 선약과를 먹었구나. 저런 사람이 안 되려고 나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구나.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모세는 광야에서 늦밤을 달아놓고 밤 독에 물린 사람들에게 쳐다보라고 했다. 아무 다른 방법이 없다. 쳐다 보라. 그런데 모두 쳐다 보니까 살아났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십자가에 매달린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쳐다 보고 저기에 내가 있네, 저 속에 진실한 내가 있네. 이것이 발견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보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 내 시각이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

절망인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뒤에 다른 영광이 들어있다. 진실이라는 영광이 들어있다. 참된 것이 들어있다. 나를 나 되게 하는 참된 것이 들어있다. 그러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 좋은 것을 보나 나쁜 것을 보나 이런 일을 보나 저런 일을 보나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이래도 나고 저래도 나다. 내가 달라지겠는가? 내가 좀 하나님 같이 되면 달라지는가? 예수님 같은 분도 정말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한 분도 해체시켜 놓으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남는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전부 다 영 앞에서 한 시체가 되도록 창조해놓았다.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전부 그렇게 되어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예수도 보면 둘이 합해진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과 하나님이 합해진 사람이다.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요1:14).”라고 했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생명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된 사람이다. 사람들이 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마16:16).”**라고 했다. 그것은 뭘 보고 말했는가? 능력을 보고 말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어지니까 황당해지고 만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해체된 것이다. 사람은 사람대로 해체된 것이다. 사람만 남았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것은 사람이다. 하나님 같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다.

이것이 많이 헛갈린 것 같다. 영지주의자들은 눈속임이다. 그는 하나님(신)이었는데 우리에게 사람처럼 보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 반대로 생각한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실재)가 충만하더라(요1:14).”**고 했다.

마태복음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마1:23)”**고 했다. 이것은 다 합해진 사람이다. 연합된 사람이다.

분명히 육신은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뛰어내리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무엇을 찾는가? 참 사람을 찾는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다.

구속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속이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람이 자기 위치에 와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자기 위치를 떠났는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겠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연합되지 않는다. 항상 따로 따로이다.

대구에 오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다. 따로 국밥집이 있다. 보통 돼지 국밥집이나 소고기 국밥집은 있는데 따로 국밥이라는 것이 다른 데는 없다. 대구에만 따로 국밥이라는 것이 있다. 한번 가보았다. 대구에 국일 따로라고 유명한 집이 있어서 가보았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국 따로 밥 따로 이다. 생전에 그런 새빨간 국은 처음 보았다. 고추 기름인가 뭔가를 넣어서 빨갛고 밥을 따로 준다. 밥 따로 국 따로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짝이었다. 아무리 해봐야 따로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따로이다. 아무리 하나님과 같이 일해보아도 따로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한다.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죽은 후에 절망을 벗어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멀다고 생각한다. 내가 육신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멀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연합이 되면 먼 것이 없어져버린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연합이다. 80살 영감과 20살 처녀가 결혼을 한다. 나이 차이가 60년 차이다. 그런데 결혼하면 나이 차이가 전혀 없어져 버린다. **연합은 둘을 하나로 만들어준다.**

전에 어떤 영감님이 80살이었는데, 20대 처녀와 결혼했다. 뒤로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바람이 났지만 살 때는 같이 살았다.

연합을 하면 하나가 되고,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연합하여 완성하도록 만들어놓았다. 어떤 인간도 홀로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다.

예수는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독생자의 영광이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 같다. 아담은 선악을 아는 일에만 하나님 같다.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일과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든지 선악을 아는 일에는 깃발을 내걸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선악과와 연합된 사람인가? 생명과와 연합된 사람인가? **연합은 홀로는 없다.**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왜 그런가?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한다. 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은 없다. **연합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한다.**

연합한 생명 만이 온전한 생명이다. 밝은 중성이다. 흙은 중성이다. 그런데 어느 씨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다고 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발은 그대로이

다. 그런데 콩밭이 되기도 하고 보리밭이 되기도 하고 뿌린 씨에 따라서다.

사람한테는 두 가지 종류의 씨가 있었다.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씨가 있고, 생명나무 열매의 그 씨가 있다.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과 연결된 열매이고,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사탄과 연결된 열매였다. 결국은 선약과를 먹고 선약과와 연합된 것은 결과적으로 사탄과 연합된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분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 무엇을 봐도 그분의 빛으로 그분을 보는 것이다. 그분의 빛이 없으면 그분을 볼 수 없다. 우리 안에는 그분의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명상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참선한다고 알아지는 것은 아니다.

명상과 참선은 자기를 찾는 것이지 우리 안에 그분은 없다. 밥이 우리 안에 없어서 밥을 먹는 것이다. 내 안에 밥이 있으면 왜 밥을 먹겠는가? 내 안에 밥이 없으니까 먹는다. 내 안에 공기가 있는가? 내 안에 공기가 없으니까 숨을 쉰다.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놓았다. 하나님까지도 연합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만물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다.

왜 사람을 지었는가? 자기 형상이 없기 때문에 지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당신이 이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 수가 없다. 우리가 안 되면 만들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 우리가 형상이 된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기가 형상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결국 쫓겨난 것이다.

예수는 뛰어내릴 수도 없는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그것이 진짜 나다. 내가 아는 내가 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다. 너무 쉽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찾느라고 평생을 쭉그리고 앉아있는 것보다 장대에 달린 낫뱀을 쳐다보는 것이 쉽다. 참 나를 쳐다 보는 것이 쉽다.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못 보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해체되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7).”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가 해체되어

버렸다. 해체된 상태가 우리의 본 모습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쉬운 것을 왜 그렇게 어려웠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를 찾기가 이렇게 쉽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거나 나는 저런 사람이라고 우길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다. 아무 것도 없다. 너무 자유롭다.

내가 의로운 사람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악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을 지키려고 하든지 나는 지키려고 하면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지킬 것이 없다. 항상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를 지킬 필요가 없다.

내가 혹시 누구에게 피해를 받을 까봐, 어디에 피해를 받을 까봐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 피해를 받을 일이 없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도 내 안에 내가 없는데, 나를 찾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쳐다 보아야 한다. 대답하기 쉽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나는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것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웅색하고 답답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면 끝난다. 아무 이유가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이유가 없다. 비난 받아야 하면 당연히 비난 받을 일이다. 너무너무 쉽다.

복음이 만민에게 미치려면, 모든 사람에게 미치려면 아주 쉬워져야 된다. 예수 믿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참 어렵다. 천당 가도록 믿으려면 어렵다. 쉬운 일인가?

구원파 사람들이 처음 나와서 말하는 사람마다 당신이 죽어서 천당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대답할 자신이 없다. 그런데 대답할 일도 아니고, 안 할 일도 아니고 나는 나지, 대답한다고 천당을 가고 대답을 못한다고 천당에 못 가겠는가?

나는 항상 그 자리이다. 잠을 자도 그 자리이고, 일어나도 그 자리이다. 어디를 가도 도로 그 자리이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예수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연합하는가? 나는 예수와의 연합,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전에는 하나님께로 가려고 애를 썼다. 기도를 해서 간다거나 일을 해서 간다거나 하나님께 가려고 애를 썼다. 내가 스스로 갈 수가 없다. 그 안에 포함된 사람만 갈 수 있다.

내가 혼자 부활할 수 있는가? 부활할 수 없다.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다. 예수 이외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가?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겠는가? 예수 안에서 있으면 예수와 함께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이다. 아무 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있다. 뛰어내릴 수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왜? 예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획득하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이 얻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따로 가지고 올 수 없다. 그 안에 있는 사람만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다 공유하는 것이다.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것을 다 같이 쓴다. 아버지가 부자이면 아들도 부자이고,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들도 가난하다. 당연하다.

내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만사 해결인데,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방법이 없었다. 무슨 수로 예수 안에 있겠는가? 내가 얼마나 잘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겠는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리라고 하셨다.

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모른다고 하겠는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했는데, 예수님이 모르시겠는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한 일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는가?

나는 여기서 완전한 해방을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도 뛰어내릴 수 있는 예수를 믿고 따라 갈 때는 힘들었다. 그런 분을 따라 가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따라 가기도 힘든데, 십자가에 못 박혀도 죽지 않을 사람을 따라 가는 것이 쉬운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졌다.

뭐든지 하면 오래 할수록 쉬워져야 된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쉬워지는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것은 예수를 잘못 알기 때문이다.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따라 가다가 안 된 사람이다. 다 버릴 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도 같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갈 수가 있는가? 베드로가 십자가라는 형태가 두려워서 못 간 것이 아니다. 길이 다르니까 못 간 것이다.

우리 인생이 잘못 가면 너무너무 어렵고, 옳은 길로 가면 너무너무 쉽다.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사람을 고생시키려고 걱정했겠는가?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고생시키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자기 대는 고생했을지라도 아들 대는 편히 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고생시키려고 지어놓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고생을 한 것이다. 불가능한 길로 우리가 갔던 것이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가는 길에는 가시덤불이 있을 것이고,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라고 했다. 다 안 되

는 것만 있다. 다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면 다 안 되는 길을 갔다. 다 성공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면 다 실패인 그런 길을 갔던 것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예수를 아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다. 그들만큼 예수를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겠는가? 너희는 치워라. 우리는 사도다.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베드로 요한 야곱보고는 특별히 그랬을 것이다.

변화산에 갔다 와서 다른 제자들이 볼 때도 너희는 말하지 마, 우리는 볼 것을 다 보고 왔다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말짱 다 헛일이 되고 말았다. 아무 소용 없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겠는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를 제 위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셈이 되는 것이다.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엇을 많이 가르친다. 성경도 그런 것이 많기는 하지만 거기에 모두 휘말려 든 것 같다. 그런 것은 유교나 불교나 매 한가지이다. 어느 종교에서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라고 하겠는가? 다 좋은 일 하라고 하고, 다 착한 일 하라고 하지 어디서 불량한 짓 하라는 종교가 어디 있겠는가?

다른 점은 내 생명의 원천이 삶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것이다. 그분에게 있다. 우리가 몰랐던 그분에게 우리 생명의 원천이 있다. 나는 원래부터 그 사람이었는데, 헛된 것을 먹고 헛된 자리에서 헤맸던 것이다. 땀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이 만민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나온 말이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온 말이다. 우리 죄가 무엇인가? 이탈한 죄다.

“주의 빛 안에서(광명 중에) 우리가 빛(광명)을 보리이다(시36:9).”

내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fountain’이라는 말을 썼다. **The fountain of life**, 내 삶의 원천이신 주님!

항상 내 삶의 원천이 예수 그분 안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일을 할 것인지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자기만큼 하게 될 것이다. 성과가 소용이 없다. 내가 밥 먹은 성과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잠을 잤다고 무슨 성과를 내는가?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일부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삶의 원천이다. 위대한 것이 아니다. 놀라운 것도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다 할 수 있다.

개의 위치에 있는 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개 노릇을 잘한다. 누가 가르쳐 주는

가? 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뒷집에 염치 불구하고 개를 많이 키운다. 밤중이거나 새벽이거나 상관없다. 자기들이 짖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짖는다.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고, 꾸짖어 봐도 소용이 없다.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fountain'이라는 말이 근원이라는 말이다. 이유, Because이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신 분이다. 그렇게 밖에 살 수 없게 하는 그 이유가 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다.

너무 많이 해서 그만 하겠다. 말만 하면 길어져서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